

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3.23.(월) 서울경제, **李 “채용공고 임금공개”...노동부, 기발의 법안에 “고용위축”**

-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상 임금 공개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미 관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고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미 부정적으로 뜻을 밝힌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‘공개가 필요한 사항’이라고 언급하자 노동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.

2. 설명 내용

□ 고용노동부는 채용공고 시, 임금 등 직장선택의 필수적 정보인 노동조건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며,

- 구직자의 알권리 충족, 직장탐색 소요시간 단축, 채용후 임금 등 노동조건 협상과정에서의 분쟁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방안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

□ 법 개정 이전이라도, 기업이 채용공고시 자발적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을 명시하도록 컨설팅, 기업교육, 우수사례 포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	책임자	과 장	조우균 (044-202-7432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진 (044-202-7443)
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병성 (044-202-7327)
		담당자	사무관	박찬영 (044-202-7393)